http://dx.doi.org/10.15686/FKL.47.0.7

‘김명순’ 이라는 텍스트와 유전(流轉)하는 여성 주체

심진경*

목차

1. ‘김명순’이라는 텍스트
2. 사랑과 연애의 불가능성
3. ‘탄실이’와 ‘주영이’ 사이에서, 김명순은
4. 피해자 정체성을 넘어

〈국문초록〉

김명순은 한국 근대문학 형성기에 뛰어난 작가 중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전기적 사실-첩의 자식이라는 출신성분, 성폭력 피해 경험, 혼전동거, 영화배우로의 전향, 일본 망명, 비극적 죽음- 때문에 스캔들러스한 사건과 이야깃거리로만 소비되어 문학 작품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김명순이 한국문학사에서 오랫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연구자들에 의해 1980년대부터 시작된 김명순 문학연구를 통해 이제 김명순은 한국 근대 최초의 여성작가이자 1920년대 가장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 논문은 일차적으로 김명순에 대한 이러한 기존논의들을 정리한 뒤, 이에 기반해 김명순 문학 연구가 김명순이라는 텍스트, 즉 김명순의 문학작품과 삶의 이력에 관한 담론들 모두를 포함한 형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김명순이라는 텍스트’ 연구의 한 사례로 김명순의 소설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김명순

* 서강대학교 대우교수

문학의 특징을 정리했다.

김명순 소설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바로 사랑과 연애, 결혼의 불가능성이다. 이러한 주제는 일차적으로는 자신을 '성적으로 문란한 신여성'으로 규정하는 세상의 규범에 저항하는 방식이지만 그 과정에서 허구와 실제가 겹쳐진 탄실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를 위해 김명순은 서사 바깥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자신에 관한 스캔들을 소설 속에 기습적으로 배치하고 재구성하고, 소설 속 여성인물들을 소설 바깥의 작가 자신과 교차시키고 착종시킴으로써 실제와 허구, 현실과 서사의 경계를 모호하게 흐린다. 특히 김명순의 자전소설 「탄실이와 주영이」는 김명순의 소설이 가진 이러한 교차성과 모호성, 유동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김명순은 이 소설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서사화함으로써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성폭력 피해자인 자신을 명예살인하는 현실에 저항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김명순 혹은 탄실은 다양한 주체 위치의 변이를 통해 당대 사회가 부여한 성 정체성을 넘어 자기만의 고유성을 개성을 갖춘 여성인물이 된다.

국문핵심어 : '김명순'이라는 텍스트, 한국 근대 최초의 여성작가, 사랑의 불가능성, 금욕주의자, 성폭력 피해자, 새로운 인식적 주체

1. '김명순'이라는 텍스트

김명순(1896~195?)은 『청춘』 현상문예 공모에 「의심의 소녀」가 당선된 1917년부터 마지막 작품으로 짐작되는 시 「그믐밤」이 발표된 1939년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간 소설, 시, 수필, 희곡 등 전 장르에 걸쳐 140~170여 편의 작품[1]을 발표하고 두 권의 작품집(『생명의 과실』(

1) 김명순의 작품을 확정하고 그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그의 문학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김명순 문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김명순 작품 목록은 조금씩 달라졌다. 그러다가 2002년 서정자는 소문만 무성했던 김명순의 두 번째 창작집 『애인의 선물』을 학계에 소개하면서

1925), 『애인의 선물』(1928))을 남겼다. 그렇게 김명순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활발한 작품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1세대 여성작가들과 함께 "작품 없는 벙어리 작가"[2]로 분류되어 한국문학사에서 배제되고 삭제되어왔다. 기존 논의에 따르면 그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된 '신여성' 김명순에 대한 저널리즘적 관심이 문학에 대한 관심을 압도했기 때문이고, 둘째로 김명순 문학에 대한 소박하고 피상적인 이해 때문이다.[3]

잘 알려진 것처럼 김명순은 몇 가지 전기적 사실 때문에 당대 사회와 문단의 이목을 끌었다. 첩의 자식이라는 출신성분, 데이트 폭력 피해생존자, 김찬영, 임노월과의 혼전 동거에 관한 소문, 영화배우로의 전향[4], 일

김명순 작품 전체를 살펴보고 확정짓는 작업의 필요성을 환기한다.(서정자, 「김명순의 창작집 『애인의 선물』」, 『여성문학연구』 제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이후 남은혜와 신혜수가 석사논문(남은혜, 「김명순 문학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8; 신혜수, 「김명순 문학 연구－작가 의식의 변모 양상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9)에서 김명순의 작품으로 잘못 알려진 작품들은 빼고 새로 발굴된 작품들을 첨가해 새롭게 작품연보를 작성함으로써 김명순 문학연구의 전기(轉機)를 마련했다. 남은혜가 첨부한 '김명순 작품 목록'에는 총 134편이 실려 있지만 신혜수의 '작품 연보'에는 총 171편이 실렸다. 신혜수의 경우 작품 편수가 더 많은 이유는 남은혜가 목록에서 제외한 고시조는 물론이고, 언급만 되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작품을 모두 목록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동안 김명순 소설로 알려진 「처녀의 가는 길」이 '물망초'라는 필명을 썼던 방정환이거나 이화학당 출신의 무명 여성작가의 소설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여러 필명을 사용했던 김명순의 문학작품을 서지 작업을 통해 확인함은 물론 동명이인 김명순'들'을 걸러내기도 하는 등, 김명순의 정확한 작품 목록을 확정하는 작업에 기여했다. 이에 더해 서정자는 후반부만 알려졌던 김명순의 단편소설 「선례」 전반부를 발굴해서 「선례」의 온전한 모습을 복원하기도 했다.(서정자, 「김기진의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 분석」, 『여성문학연구』 제4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252쪽) 김명순의 작품 목록은 여전히 갱신 중이다.

2) 홍구, 「1933년의 여류작가의 군상」, 『삼천리』 1933년 3월호.

3)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김명순 문학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는 대부분의 김명순 문학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바다.

4)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김명순은 「광랑(狂浪)」이라는 영화에 출연할 계획이었지만(『동아일보』, 1927년 8월 28일.) 제작이 무산되는 바람에 실제로 영화배우로 활동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순이 여배우로 전향했다가 결국에는 여급으로, 댄서로 전락하게 됐다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이는 동명의 여배우 김명

본 망명, 청산뇌병원에서의 사망 등으로 요약되는 김명순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깃거리이자 전형적인 신여성 몰락기로 회자되었다.[5] 1차 일본 유학 시기에 겪었던 데이트 폭력이 『매일신보』(1915)에 세 차례에 걸쳐 보도된 것을 시작으로, 김명순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은 여러 형태로 반복되다가 김기진의 악명 높은 공개장(1924)[6]을 통해 하나의 사실로 굳어지게 된다. 그렇게 김명순은 성적으로 문란한 신여성의 정형(stereotype)이 된다. 예컨대 1927년 '은파리'라는 필명으로 신여성 뒷담화('은파리'는 1921년부터 김명순을 연상케 하는 신여성에 대해 처녀가 아닌데 처녀 행세를 했다는 등의 소문을 잠입취재 형식으로 여기저기에 실었다)를 해오던 방정환을 김명순이 고소한 사건[7]에서도 역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김명순의 성적 운명은 당시 미디어에 의해 이런저런 형태로 왜곡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유포되었다. 여하튼 김기진이 그렇게 공개장을 통해 김명순을 문학적으로 살해한 1924년을 기점으로, 김명순 문학의 동력은 급격하게 떨어진다.[8] 이후 김명순의 삶은 1930년 일본

순을 작가 김명순과 혼동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남은혜, 「김명순 문학 연구」, 42~44쪽 참고.

5) 김명순의 삶의 이력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소문에 관한 논의는 최혜실, 『신여성, 무엇을 꿈꾸었는가』(생각의나무, 2000.)와 최명표, 「소문으로 구성된 김명순의 삶과 문학」(『현대문학이론연구』 제30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7.) 참조. 사실상 김명순 문학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들은 김명순의 생애사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다.

6) 서정자는 김기진의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신여성』, 1924.11)을 김명순에 대한 대표적인 "미디어 테러"로 보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서정자, 앞의 글 참고.

7) 남은혜, 앞의 글, 37~38쪽 참고. 김명순은 김기진의 공개장에 대해서도 반박문을 제출하는데, 이는 1924년 『개벽』 송년호에 소개된 『신여성』 송년호 목차에 「김기진씨의 공개장을 무시함」이라는 제목의 김명순 글이 소개되었던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반박문은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게재되지 않았고 1924년 『신여성』 송년호 편집 후기에 당시 편집장인 방인근이 김기진의 공개장에 대해 사과하는 글만 실린다. 이런 사건 등을 통해서 우리는 김명순이 자신을 둘러싼 헛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8) 많은 연구자들은 1924년 이후 김명순의 문학 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결정적인 이유를 김기진의 공개장에서 찾고 있다. 김명순 문학 이력에서 '1924년'이 갖는 의미에 주목한 논의로는 신지연, 「1920년대 여성 담론과 김명순의 글쓰기」, 『어문논집』

으로 망명한 이후에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스캔들의 소재가 되어 대중적으로 소비된다. 1930년 이후 확인되는 김명순에 대한 여러 매체의 다양한 기사들은 재능 있는 한 신여성의 성적 타락과 경제적 추락을 비극적 신파 톤으로 반복한다. 김명순을 모델로 한 김동인의 소설 「김연실전」(1941)은 이렇게 김명순을 대상으로 하여 오랫동안 스캔들로 만들어지고 유포된 이야기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9]

이러한 '김명순 서사'[10]가 생산되고 유포되는 과정에서 정작 김명순의 작품이 실종된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할는지도 모른다. 그 결과 작품 없는 문학생활에 골몰했다는 식의 평가[11]는 그후로도 오랫동안 김명순을 따라다닌 고정관념으로 작용했다. 그 때문일까? 김명순 문학은 문학 그 자체로 해석되기보다는 많은 경우 그의 전기적 사실과 이를 둘러싼 소문과 관련되어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김명순의 필명 중 하나인 '탄실'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예컨대 「탄실이와 주영이」), 혹은 작가 자신을 연상시키는 소설들은 자전적 사실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거나 거꾸로 이들 소설이 자전적 사실을 확인해주는 사실 근거로 활용되기도 하는 등, 김명순의 작품은 많은 부분 그의 삶의 이력과 연동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 경향이 김명순 문학의 예술적 지향을 가려버리는 한계로 작용했

제48권, 민족어문학회, 2003.

9) 김명순을 여성작가가 아닌 가십거리로 다룬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는 이명온, 『흘러간 여인상』(인간사, 1956)과 임종국·박노준, 『흘러간 성좌 3』(국제문화사, 1966)이 있다. 물론 임종국과 박노준의 경우는 이명온에 비해 좀 더 객관적인 태도로 김명순에 접근하고 있긴 하지만 그의 작품보다는 생애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10) 여기서 '김명순 서사'란 김명순을 모델로 하여 그를 대상화하고 허구화함으로써 하나의 이야깃거리로 소비한 일련의 담론들, 예컨대 김명순에 관한 평론, 가십, 소설, 전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 점에서 '김명순 서사'를 김명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낸 자기 서사와 당대 가부장제 남성 중심사회의 시선으로 구현된 서사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 조성희의 개념과는 다르다. 조성희, 「서사를 통해 발현되는 자아와 세계의 간극 고찰－김명순 서사의 치유가 실패한 원인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37집, 겨레어문학회, 2006 참조.

11) 김윤식, 「인형의식의 파멸」, 『한국문학사논고』, 법문사, 1973, 230쪽.

다는 지적도 이미 있었지만[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작가의 삶과 문학을 분리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특히 삶 자체가 스캔들이 되어버린 신여성의 경우 그러한 분리는 더욱 불가능한 것일 수 있다. 게다가 김명순 또한 스스로를 허구화한 '탄실'을 자기 작품에 등장시킴으로써 가부장제적 시선에 의해 스캔들화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 삶을 텍스트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했다.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김명순의 경우 '텍스트'의 범주는 작품 그 자체를 넘어서 그것을 낳은 삶의 이력과 이를 둘러싼 담론들로 확대되는 것이 좀 더 온당할 것 같다. 의도하건 의도치 않건 간에 김명순에 대한 연구가 불가피하게 '김명순이라는 텍스트'에 대한 연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김명순 문학에 대한 연구가 단순히 작가의 자전적 요소들이 작품에 얼마나, 어떻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당연하게도 그것은 텍스트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석을 동반해야 한다.

몇몇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김명순의 소설은 유독 미완성인 경우가 많다. 「돌아다볼 때」(1925)를 제외하고 대표작으로 분류할 수 있는 「칠면조」(1920), 「외로운 사람들」(1924), 「탄실이와 주영이」(1924)가 모두 미완이며, 완결작이라고 하더라도 소품에 그치거나 인물과 줄거리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명순 소설이 "되는 대로 쓴 이야기"[13]는 아니다. 오히려 이는 다양한 서술시점의 교차, 잦은 회고적 시점, 인물의 복잡한 내면독백, 비선형적 에세이식 구성 등으로

12) 김명훈, 「두 개의 신화와 두 번의 돌아봄, 그리고 하나이지 않은 X-김명순의 「돌아다볼 때」 다시 읽기」,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6호, 한국현대문학회, 2018, 369쪽 참조.

13) 위의 글, 366쪽. 이 글에서 김명훈은 김명순 소설의 서사적 완결성이 부족한 이유를 "작가가 세간의 비난에 대응하느라 혹은 자기연민에 빠져 갈피를 잡지 못했기 때문"(366~367쪽)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야말로 모종의 선입견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선입견은 김명순의 「돌아볼 때」의 예술적 모티프가 김명순과 연인 관계였던 김찬영, 임노월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하는 데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마치 '여성작가는 만나는 남자가 달라질 때마다 글의 스타일과 내용이 달라진다.'는 김기진의 공개장 내용을 연상시킨다.

요약되는 김명순 소설 특유의 작법과 무관하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작법이 하나의 완결된 문학세계를 구축하기보다는 같은 모티프를 반복하고 두서와 결말이 없는, 그래서 구멍 뚫린 미완의 어떤 세계를 짐작하게 할 뿐이라는 점에 있다. 그래서 김명순 문학 연구에서 문학작품만을 따로 떼어내 그 자체의 미학적 완결성을 논하는 경우 일정 정도의 논리적 비약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 젠더 지리학 등에 기반한 작가론들이 이론의 과잉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이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김명순 문학을 남성 중심주의 담론에 저항하는 대항담론으로 혹은 가부장제적 억압에 저항하는 여성주의 문학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어떤가? 사실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이 선험적 평가기준이야말로 어떤 측면에서는 김명순 문학에 잠재되어 있는 새로운 독법의 가능성을 억압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명순이라는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되 미학적 해석학에 경도되지도, 대항담론 혹은 여성주의 문학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지도 않는 김명순 문학 연구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 글은 김명순의 작품 중 소설[14] 분석을 통해 그 가능성을 소박하게나마 타진해보는 시도다.

2. 사랑과 연애의 불가능성

현재까지 확인된 김명순의 소설은 소년소설 4편과 번역소설 1편을 제

14) 서정자와 남은혜가 함께 편한 『김명순 문학전집』(푸른사상, 2010)은 여전히 진행중인 텍스트 확정에서 가장 확실하고 믿을만한 작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집은 현대어로 번역하지 않은 채 원전 그대로를 싣고 있어 일반 독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후 출간된 김명순 소설집 『외로운 사람들』(송명희 편역, 한국문화사, 2011)은 번역소설과 소년소설을 제외하고 그때까지 발굴된 김명순 소설 전체(「젊은날」은 빠져 있다.)를 현대어로 고쳐 실었다. 이 글에서 김명순 소설의 인용은 일차적으로는 이 소설집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 『김명순 문학전집』을 참고한다.

외하면 총 16편이다. 김명순의 소설 목록을 발표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심의 소녀」(1917), 「조모의 묘전」(1920), 「영희의 일생1(미완)」(1920), 「칠면조(미완)」(1921), 「선례(미정고(未定稿)」(1923), 「돌아다볼 때」(1925), 「외로운 사람들(완결 여부 확인 불가)」(1924), 「탄실이와 주영이(미완)」(1924), 「꿈 묻는 날 밤」(1925), 「젊은 날」(1925), 「손님」(1926), 「나는 사랑한다」(1926), 「일요일」(1926), 「분수령」(1928~1929 5월 추정), 「모르는 사람같이」(1929), 「해 저문 때」(1938). 이중 『조선일보』 연재본(1924년 3월 31일~4월 19일)인 「돌아다볼 때」 초본은 『조선일보』 원본 중 1~3회분이 누락되어 소설 전체를 확인할 수 없고 작가가 초본과는 완전히 다른 결말을 통해 개작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별개의 작품으로 보기보다 개작본 「돌아다볼 때」의 일부로 다루었다.[15]

그런데 이 소설 목록에서 주목할 점은 「칠면조」, 「돌아다볼 때」, 「외로운 사람들」, 「탄실이와 주영이」를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이 대부분 인물이나 사건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에세이에 가까운 짧은 소설이라는 사실이다. 그나마 어느 정도 분량을 갖춘 위 네 편의 소설도 미완이거나 복합적이고 불완전한 구성 때문에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김명순 소설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미학적 완결성이 아니다. 그보다 우리는 김명순 소설의 주체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명순은 서사 바깥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생산되고 유통되던 자신에 관한 스캔들을 자기 소설 속에 기습적으로 배치하고 재구성함으로써 '탄실'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김명순을 만들어내고 있다. "분자가 원자로 갈려나가듯이 갈리는 마음을 현미경 속에 넣어보"[16]는 해부학적 방법론을 통해 만들어진 이 자기 폭로적이면서 분열적인 주체야말로 김명순 소설

15) 「돌아다볼 때」 원본과 개고본의 차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논의는 주수민, 「김명순 단편 「돌아다볼때」 소고」, 『영주어문』 제40집, 영주어문학회, 2018 참조.

16) 김명순, 「외로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송명희 편역, 한국문화사, 2001, 101쪽. 이후 김명순 소설의 인용은 작품명 뒤에 이 책의 쪽수를 부기한다.

을 작동시키는 기본 동력인 동시에 김명순 소설의 주제를 구현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특히 김명순 소설에서 주목할 점은 "자유연애를 주장하면서도 섹슈얼리티의 배제를 전제하는 이상적 연애관을 고집"[17]할 뿐만 아니라, 접근 불가능성을 통해서만 가능한 연애의 역설을 반복적으로 다룬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김명순 소설의 일관된 주제는 연애와 결혼의 불가능성 혹은 사랑의 불가능성이다. 예컨대 「돌아다볼 때」의 소련과 효순, 「외로운 사람들」의 순철과 순영, 「젊은 날」의 수희와 상옥, 「나는 사랑한다」의 영옥과 최종일, 「일요일」 속 익명의 남녀 등, 이들은 모두 연애가 불가능한 관계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불가능성이야말로 이들의 연애를 더욱 숭고하고 진정성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김명순이 하우프트만의 희곡 「외로운 사람들」(1891)의 주인공인 요하네스와 안나의 관계에 이끌린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우프트만의 「외로운 사람들」에서 요하네스와 안나는 "평생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둘이 교감했던 한 가지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서로 연결된 채 살아가는 유일한 길"[18]이라는 사실에 공감하고 성관계 없이 지적, 정신적 사랑만이 있는 고차원적인 연애를 추구한다. 김명순의 소설 「돌아다볼 때」와 「외로운 사람들」은 이렇듯 "두 사람이 헤어져 있지만 한 법칙 아래서 한뜻으로 살아나가자는 것"(「돌아다볼 때」, 89쪽.)으로 요약되는 요하네스와 안나의 신념을 이상적 연애의 모토로 내세우면서 하우프트만 희곡과의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드러낸다. 그런 점에서 "노동(勞動)과 수학(修學)과 사랑(박애,博愛)"(98쪽)를 위한 공부에 애쓰는 「돌아다볼 때」 개작본의 결말은 하우프트만의 「외로운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상적 연애'의 관념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명순은 결말 부분에 소련

17) 신혜수, 「1920년대 문화번역된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Gerhart Hauptmann)－김명순의 「돌아다볼 때」와 「외로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국제어문학회, 제69집, 2016, 192쪽.

18) 위의 글, 182쪽.

의 내면 독백을 맥락 없이 덧붙이면서 「돌아다 볼 때」를 단순히 하우프트만의 「외로운 사람들」의 또 다른 판본이 아닌 김명순 고유의 소설로 만들고 있다. 그 내면 독백은 다음과 같다.

> 흐름은 제방을 깨뜨린다!
>
> 그러나 그런 때에 그 뒤로서는 유전(遺傳)이다 간음(姦淫)이다 할 것이다. 이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의 쾌활한 용감함이 무엇이라 대답할까? '너희는 무엇을 이름 짓고, 어느 이름을 꺼리며 싫어하느냐. 그중 아름다운 것을 욕하진 않느냐' 하지는 않을지? 누가 보증하랴. 누가 그 부르짖음을 막을 만치 깨끗하냐. 어떤 성인이 그것을 재판하였더냐. (「돌아다볼 때」, 98~99쪽.)

"흐름은 제방을 깨뜨린다!"는 선언 뒤에 갑자기 등장한 "유전과 간음"이라는 표현은 소설 내적으로는 세계의 변화와 맞먹는 자신들의 이상적 연애에 대한 세간의 몰이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소설 외적으로는 김명순에 관한 스캔들(출신성분, 연애 편력 등)을 떠올리게 한다. 이때 소련이라는 인물은 성관계를 갖지 않는 지적 연애를 추구하는 (하우프트만의 「외로운 사람들」의 주인공인) 안나의 자격을 빌려 김명순에게 덧씌워졌던 '성적으로 문란한 신여성'이라는 오명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럴 때 소련은 단순히 서사 내적인 존재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김명순의 소설에서 소설의 안과 밖이 뒤섞이는 이러한 착종은 「외로운 사람들」에서도 반복된다. 특히 소설에 등장하는 '탄실이'라는 이름으로 쓴 몇몇 시[19]는 소설 속 순희와 순영의 비극[20]이 단순히 소설 내적 사건

19) 김명순 소설에는 종종 시가 삽입되는데, 그때 시는 대개 인물의 심리 상태를 짐작하기 위한 보조 텍스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김명순의 「외로운 사람들」에는 순서대로 「싸움」, 「그쳐요」, 「유리관 속에서」, 「남방」, 「내 가슴에」, 「저주」, 「유언」, 「분신」 이렇게 8편의 시가 실려 있다. 이중 「싸움」, 「그쳐요」, 「남방」은 저자 표

에만 국한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순희의 연애를 부도덕한 것으로 비난하는 장면 이후에 등장하는 시 「유리관 속에서」는 시의 저자를 '탄실이'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여러 모로 김찬영, 임노월과의 연애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김명순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킨다. 그럴 때 "생장(生葬)되는 이 답답함을 어찌하랴/미련한 나! 미련한 나!"(「외로운 사람들」, 197쪽)라고 말하는 발화 주체는 소설 속 순희이기도 하고, 소설 바깥의 김명순이기도 하다. 불가능한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급기야 죽고 마는 순영의 이야기에 삽입되는 일련의 시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시들은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별합시다."(「외로운 사람들」, 214쪽)로 요약되는, '사랑, 이별,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불가능성에 관한 김명순식 단상(斷想)에 가깝다.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에서 순희와 순영의 서사가 '탄실이'의 시를 통해 보충되는 방식으로 인해, 순희와 순영은 모두 똑같이 '탄실이' 혹은 김명순의 서사적 분신이 된다. 그런데 순희는 다양한 연애편력의 소유자이고 순영은 그와 반대로 연애 경험이 전혀 없는 인물이다. 어떻게 극과 극이랄 수 있는 이 두 인물이 똑같이 김명순의 분신일 수 있는가? 서로 전혀 다른 그 둘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사랑이 갖는 불가능성이다. 순희는 실현 가능한 사랑을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그 사랑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면, 순영은 애초에 몰락한 왕국의 왕녀라는 신분의 비현실적 이방인인 까닭에 순철과의 사랑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설정된다.

「돌아다볼 때」와 「외로운 사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의 사랑이 더욱 숭고한 것으로 승화되는 것은 그것이 실현될 수 없는 것

기가 따로 되어 있지 않은데 반해, 나머지 5편은 저자가 "탄실이"로 표시되어 있다.

20) 순철의 누이 순희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기 재산을 모두 훔쳐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음독자살을 하고, 순영은 자신에게 연애감정을 느끼면서도 조강지처인 복순에 대한 의리 때문에 자신을 멀리 할 수밖에 없었던 순철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병들어 죽는다.

이기 때문이다. 김명순이 자기의 분신인 여성 인물들을 범접할 수 없는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로 그리는 것도 따져 보면 사실은 이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다.

> 한편에는 일녀들이 서넛이 늘어앉아서 서로 등을 씻기어주고 감사한 예를 하다가 희종의 고상한 자태를 쳐다보고는
> "왕녀와 같이 귀여운 처녀." 하고 이야기하였다.
> 희종은 조용히 조선사람 모녀가 앉은 바로 2,3보 앞에 앉아서 손발을 씻을 때 비록 여위고 창백하나 가지런히 구조된 날씬한 체격이 대리석상 같아 사람들은 눈이 부신 모양이었다.(「분수령」, 341쪽)

마치 자신의 미모에 도취된 것처럼 보이는 여성인물의 외양 묘사는 김명순 소설에 매우 빈번하게 등장한다. 예컨대 다음 문장들. "놀랄 만치 아름답다." "아름답다." "곱다. 그 몸매!"(「꿈 묻는 날 밤」) "대리석으로 깍은 듯이 콧날이 서고, 그 검은 보석 같은 두 눈, 젖을 빨고 싶어 하는 작은 입" "서울 안에 하나뿐이라고 칭찬한 아름다운 조건"(「나는 사랑한다」), "한 번 잘났는걸." "글쎄 어디 외국이나 갔다 온 여자 같구려." "한 번 저만치 나고 볼 것이다."(「모르는 사람같이」) 등등. 자기의 분신인 여성인물의 빼어난 외모에 대한 이런 식의 다소 과한 묘사는 어찌 보면 자기도취적인 나르시시즘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증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즉 여기에 은밀히 기재돼 있는 것은 자기를 부러움이나 질시의 대상이 될 뿐 남자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대상으로 만들려는 욕망이다. 그 뒤에 있는 것은 스스로를 접근 불가능한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더러운 여자'라는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하고자 하는 안타까운 노력일지도 모른다.

흥미로운 것은 김명순의 소설에서 여성인물의 이런 빼어난 미모가 섹슈얼리티가 배제된 지성이라는 덕목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김명순 소설에서 외모는 인물의 지성과 이상의 수준을 재는 척도로 작용한다. 예

컨대 「일요일」에서 못생긴 커플은 "아무런 이상도 없었던 듯 하층 동물적 본능에만 살겠다는"(335쪽) 동물적 인간으로 그려지고, 잘생긴 커플은 지나친 학구열과 "동지" 의식을 가진 "금욕주의자"(337쪽)를 대변하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또 다른 소설 「분수령」의 희종과 선형을 그리는 방식도 이와 방불하다. 「분수령」에서 눈부신 미모의 소유자인 희종은 "성실한 청교도적 생활"을 추구하는데 반해, "신념도, 이상도 없이 오직 남녀관계만을 탐하는" 선형은 "하층동물"(342쪽)에 비유된다.

그러나 김명순 소설에서 잘생긴 금욕주의자는 그와 "지독한 대조"를 이루는 못생긴 하층동물을 거부하면서도 그들과 공존한다. 「돌아다볼 때」 초본 속의 소련은 효순을 사랑하면서도 못생긴 바람둥이 최병서와 결혼한 다음 "자신을 더럽힌 (자기) 피"를 저주하면서 자살한다. 「나는 사랑한다」의 영옥도 마찬가지로 최종일을 사랑하면서도 "동물 같은" 서병호와 결혼한 뒤 결국 집에 불을 질러 자살한다. 「분수령」의 희종은 또 어떤가. 그녀는 심지어 열입곱 살의 자신을 성폭행한 선형이 내민 재결합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한다. 이 동물과 금욕주의자의 기이한 공존은 그대로 김명순 소설의 모순적인 주체의 성격과도 연관된다. 「나는 사랑한다」의 영옥이 "왕녀 같은 처녀"이면서 동시에 "정조 잃은 처녀"(330쪽)일 수 있는 것도 이런 사정과 조응한다. 마음속에 이상적 연애의 대상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동물 같은 남자들과 엮일 수밖에 없는 이들 고귀한 성폭력 피해자들이야말로, 한 마디로 규정짓기 어려운 김명순 소설 속 여성인물들의 다양한, 서로 상충하는 모습의 원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탄실이'와 '주영이' 사이에서, 김명순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김명순 소설에서 "정욕"(「젊은 날」), "더럽혀진 피"(「돌아다볼 때」) 등의 표현에서 발설되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거부는 어떤 측면에서 자신에게 가해졌던 유·무형의 폭력에 대한 자기 방어

적 검열로, 그리고 청교도적 금욕주의자 여성은 그러한 자기 방어적 검열의 형상화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명순 소설 속 여성인물들은 그런 '작용-반작용'의 구도만으로 이해하기에는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모호하고 모순적이다. 물론 김명순은 자신을 둘러싼 소문을 자기 소설 속에서 적극적으로 부정하면서 그에 대한 대항담론의 일환으로 자존심 강한 금욕주의자를 형상화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한 인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내면을 다룬 소설 「칠면조」[21]에서 작중화자('순일')은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미세한 갈등과 감정 변화를 시시각각 포착하는 예민한 여성으로, 상충하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감정 사이에서 방황하다 급기야 신경쇠약 상태에 이르고야 만다. 순일이 니나 슐츠 선생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진 「칠면조」는, 그녀가 일본 K부에 있는 전문학교 TS에 입학하기 위한 지난한 여정과 가입학(假入學) 이후 겪게 된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그린다. 겉보기에 갈등의 주된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다. 그러나 소설에서 정작 순일을 괴롭히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맺기의 어려움이다. 순일은 매순간 남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오히려 관계를 망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도 한다. 자신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재일조선인 노동자 박흥국에 대해서는 "외국에 가서 노동하여 지나는 사람"(53쪽)에 대한 편견으로 거부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렇게 생활비도 없이 남의 집에 얹혀사는 상황에서 가망 없는 공부에 매달리다가도 "외양만은 귀족적인 D씨"에게 갑자기 호감을 느끼면서 공부에 흥미를 잃기도 한다. 도대체 왜 그런가?

> "내 자신아 얼마나 울었느냐, 얼마나 알았느냐, 또 얼마나 힘써 싸웠느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느냐, 네 몸이 훌훌 다 벗고 나서는 날 누가 너에게 더럽다는 말을 하랴?"하고 자애의 맘을 일으키며 뜨거운 눈물

21) 「칠면조」에 대한 분석은 심진경, 「여성작가 생존기-나혜석, 김일엽, 김명순의 삶과 문학」, 『경희, 순애 그리고 탄실이』 해설(교보문고, 2018)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섞어 낯을 씻고 방으로 들어와서 분을 발랐더니 옆에서 Y여사가 "분도 많이도 바른다."하면서 자기도 두 손바닥에 분물을 따르더니 박박 기—다란 얼굴에다 문지릅디다.(「칠면조」, 43쪽.)

H선생에게 했던 돌발적인 행동을 내내 후회하던 순일은 갑자기 M여사와 Y여사는 물론 Y청년조차 자신을 꺼리고 비난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그러다가 문득 순일은 이 모든 왜곡된 심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것은 "커다란 지렁이가 우물우물 기어가다가 무엇의 발끝에 밟히어서 구물구물 애쓰는 것"(43쪽)에 비유되는 모종의 수치심에서 비롯된 피해의식이다. 소설에서 그러한 피해의식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네 몸이 훌훌 다 벗고 나서는 날, 누가 너에게 더럽다는 말을 하랴?"라는 구절을 통해 그 사건의 실체가 다름 아닌 작가인 김명순 자신이 겪은 모종의 사건과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을 둘러싸고 만들어진 온갖 가십과 스캔들은 작가 김명순을 허구와 실제가 구분되기 어려운 어떤 문학적 현실 속에 던져놓은 것은 아닐까? 어쩌면 스스로를 허구화할 때라야 고통스러운 경험은 비로소 삶에서 분리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탄실이와 주영이」에는 "탄실이를 재료로 써보게. 확실히 심상치 않은 것이 될 터이니……"라는 제안이 등장하는데, 이는 신여성의 성적 운명에 관한 떠도는 이야기와는 다른, 그리고 자서전적 글쓰기에만 머무르지 않는, 자신을 허구화·서사화함으로써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를 암시하는 것이다. 김명순은 자전적 소설인 「탄실이와 주영이」 초반에 문학청년인 이수정과 지승학을 통해 이 소설의 창작 동기를 직접 밝히고 있다. 그것은 허구적 동기와 실제 동기로 나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그러기 내 말이 아무리 사랑을 기초로 하고 창작하고 생활하는 예술가일지라도 사랑을 하려다가 한번 실패를 했거든 참아서 들뜨는 마음을 꽉 누르고 자기가 경험한 실패를 그 뼛속까지 해부해보란 말이야."(「탄실이

와 주영이」, 226쪽.)

> 쥐 같은 작은 남자와 약혼하려다가 그 남자에게 절개까지 억지로 앗기우고, 그마나 그것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어리고 철없는 내 누이의 책임이 되어서 그보다 5,6년이나 위 되는 쥐 같은 남자가 염복(艶福: 아름다운 여자가 잘 따르는 복) 있다는 헛자랑을 얻고 또 내 누이와는 원수가 되어서 현재 저와 꼭 같은 다른 계집하고 잘 산다하네. 그러기로서니 어리고 철없던 사람이 자라지 말라는 법이야 어디 있나. 그동안에 내 누이가 자라고 철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고만이 아닌가.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고 기막힌 일이 많아…… (……) 그애가 10년 전에 동정을 제 마음대로도 아니고 분명한 짐승 같은 것에게 팔힘으로 앗기었다 하면, 시방도 바로 듣지 않고 내 누이만을 불량성을 가진 여자로 아니……. (「탄실이와 주영이」, 231쪽.)

위의 예문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김명순이 「탄실이와 주영이」를 창작한 동기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성폭력 가해자는 아무런 사회적 비난도 받지 않고 오히려 결혼해서 잘 사는 데 반해 피해자인 자신은 "불량성을 가진 여자"로, 즉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으로 명예살해당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있다. 다른 하나는 실패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해부해 보고 싶은 작가적 욕망이다. 「탄실이와 주영이」를 김명순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 쓴 대항서사로만 보는 해석[22]은 그중 전자만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럴 경우, 스스로를 허구화하려는 작가적 욕망을 배제해버릴 위험이 있다. 게다가 소설에서 주영이와 탄실이는 완전히 다르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같지도 않다.

1924년 『매일신보』에 번역 연재된 나카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의

22) 「탄실이와 주영이」를 대항서사로 보는 가장 최근의 논의는 서정자, 「김기진의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 분석」, 267~270쪽 참고. 그 외 대부분의 기존 논의에서도 『여등의 배후로서』에 나오는 타락한 권주영이 자기를 모델로 한 것이라는 세간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김명순이 「탄실이와 주영이」를 썼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소설『여등(汝等)의 배후(背後)로서』의 주인공인 '주영이'는, 하숙집 주인의 친구인 기병 소위의 유혹에 빠져 정조를 유린당한 뒤에 남성에 대한 복수심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이다. 세간에는 이 '주영이'가 김명순을 모델로 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 때문에 작가는 무엇보다도 먼저 "탄실이야 주영이같이 산 여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전형을 못 벗어난 사람"(227쪽)으로 다뤄진다는 점에서만 보면 탄실이와 주영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 통상적으로 여성에 대한 정형화와 타자화는 여성을 삶의 실체성이 박탈된 관념으로만 상상하게 한다. 그러나 김명순은 그와 반대로『여등의 배후에서』의 권주영을 "남자의 계급을 가리지 않고 정조관념이 없고도 한편으로는 독한 여자"(235쪽)로, 달리 말하면 손쉽게 정의하기 어려운 복합적 존재로 이해한다. 탄실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작가는 타락한 신여성의 전형으로만 소비되는 주영이와 탄실이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호명한다. 김명순에 따르면 그들은 타락한 신여성도 성폭력 피해자도 아닌, "외부적 혁명가"(주영이)이거나 "내부적 혁명가"(탄실이)다.

탄실이의 과거 회상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자기 정의는 바로 "명예심 많은 처녀"(248쪽)라는 표현이다. "탄실의 어린 날은 가슴이 터지는 듯한 부끄러운 아픔과 어렴풋한 의심에 싸여 있었"(245쪽)는데, 가장 큰 이유는 "첩의 딸, 기생의 딸"이라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부각되는 것은 바로 수치심이다. 수치심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정상성이라는 규범에 부합하지 않을 때"[23] 뒤따르는 감정으로, 스스로를 비정상으로 구별짓는 정체성 감각이다. 그럴 때 "명예심"이란 세계의 규범과 규율에 부합하려는 마음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어린 탄실에게 그것은 지식욕으로 표출된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욕과 '첩의 딸'이라는 자기 결점을 감추려는 욕망은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 여성상인 "정숙한 여자"(264쪽)가 되고 싶다는 바람으로 이어진다.

23)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역,『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395쪽.

그러나 “애국지사라던 이들”은 도망가고 “예수만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험담하며 “자기만을 귀애하던 부친”은 장남에게만 재산을 남기고 죽는다. 탄실이가 믿었던 모든 “점잖은 것”들은 붕괴된다. 그 결과 그녀는 정상성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 ‘첩의 딸’이라는 비정상의 낙인을 찍었던 이 세계가 실상은 첩이자 기생인 자기 어머니보다 더 부도덕하고 부조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세계에 대한 적개심은 곧 공부를 통해 복수하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지고 이 “복수를 하고 싶은 처녀”(266쪽)는 열여섯에 동경유학을 떠난다. 그리고 탄실이는 그곳에서 성폭력 가해자인 태영세를 만난다. “그것은 탄실이가 열여덟 살 나던 봄이었다.”(279쪽.) 그러나 김명순은 끝내 ‘그것’이 무슨 일인지 말하지 않는다. 다만 액자 외부이야기에서 탄실의 오빠 김정택의 입을 빌려 ‘절개를 억지로 빼앗긴 것’으로 표현될 뿐이다. 피해자의 언어는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리하여 스스로를 허구화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객관의 무대 위에 세우고자 했던 김명순의 의도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렇다면 “명예심 많은 처녀”였고 “정숙한 여자”이고 싶었던, 그러나 “복수를 하고 싶은 처녀”로 자랄 수밖에 없었던 탄실이는 결국 ‘성폭력 피해자’에만 머무르고 마는 것인가?

4. 피해자 정체성을 넘어

그렇지 않다. 당연한 얘기지만 김명순은 피해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24] 그녀는 ‘한국 근대 최초의 여성작가’이자 두 권의 창작집을 포함해

24) 김명순의 성폭력 피해 경험과 그에 대한 언론의 2차 가해를 중심으로 김명순과 김명순 문학에 대해 분석하는 최근 논의들은 자칫 김명순 문학을 성폭력 피해자라는 정체성에만 가둔 채 제한적으로만 다룰 우려가 있다. 대표적으로 김경애, 「성폭력 피해자/생존자로서의 근대 최초 여성작가 김명순」, 『여성과 역사』 제14집, 한국여성사학회, 2011; 류진아, 「근대 여성 성폭력 연구-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의 소설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제61집, 국어문학회, 2016.

서 총 140편이 넘는 시, 소설, 수필, 희곡을 쓴 다재다능한 작가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비판과 인신공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반박했던 활동가이기도 하다.[25] 김명순은 당대의 성적·도덕적 규범에 의해 규정된 '성폭행 피해자=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도덕률과 문법(문학의 법)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를 갱신하려고 노력한 자아혁명가이기도 하다. 그 점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네 마음속의 신비한 비밀의 힘"을 발견함으로써 "모든 수치의 저수지"에서 벗어나 "모든 분노와 반항을 잊어버리고" "단지 너를 위하여" "네 한 몸의 문제만 풀러 너는 간다."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26]

누군가를 비정상인으로 낙인찍는 것이야말로 그의 개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없애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피해자를 비인간화함으로써 고유성을 상실하게 하고 피해자가 '망가진 정체성'을 갖게 한다.[27] 그러나 김명순은 자신의 피해 경험을 허구화된 객관의 무대 위에 전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그 경험으로부터 심리적·문학적 거리를 확보하려고 시도했다. 그것은 자신의 피해 경험으로 되돌아가려는 심리적 관성을 벗어나, 그리고 이 세계의 규정성을 벗어나 오로지 자기 공부와 이해력을 바탕으로 자신을 탐구하고 해석하려는 노력이었다. 물론 그 시도가 언제나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순은 소설 속에 서로 상충하고 모순되면서 분열하는, 그래서 단 하나의 법에 귀속되기 어려운 여성인물을 배치하고 자발적으로 운동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고유성과 개성을 회복하고자 했다. 김명순의 「손님」이야말로 이러한 작가의 시도가 가장 두드러진 소

25) 자신에 대한 거짓 선동과 루머에 대해 김명순이 적극적으로 항의한 예로는 김기진에 대한 반박문과 은파리 필화사건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간략히 언급했다.

26) 김명순, 「네 자신의 위에」, 『김명순 문학전집』, 서정자·남은혜 공편, 푸른사상, 2010, 648~653쪽.

27)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낙인을 찍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사 너스바움, 앞의 책, 395~403쪽 참고.

설이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도 기존의 정조 관념과는 무관한 곳에서 재치와 유머로 무장한 '을순이'라는 인물을 통해 어떤 소설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낯선 신여성상을 제시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이 말이다.

> 아아, 역시 을순이는 미련한 여자는 아니다. 그는 이 기회를 타서 자신을 이 서울 안에 덩굴뻗게 하였다. 누가 청년치고 그의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가 부른 노래를 다시 안 부르는 청년이 있을까. 농락으로 찬 사회, 모든 것을 웃어버리지 않고는 못 살 것 같은 사회, 무엇이 이 가운데 생겨나지 않나. 새빨간 구슬 같은 생명의 정기로 뭉쳐진 무엇이, 나와 너를 또 사회를 깨뜨려 못 줄까?(「손님」, 307쪽)

이 소설은 투르게네프의 마지막 소설 「처녀지」 속 작중인물인 '솔로민'과 '마리안나'를 연상시키는 '주인성'과 '삼순'을 통해 '소비에트 이상국'과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김명순 자신의 시각, 조선 민중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소설은 김명순 소설로서는 예외적으로 '손님'인 남성 교사가 신여성 삼순을 교화하는, '남성 교사-여성 학생'이라는 익숙한 성별 위계질서에 기반한 소설이다. 대개의 기존 논의들이 이 둘 사이의 사상적 교류와 그로 인한 삼순의 전향(손님에게 감화된 삼순은 결말 부분에서 음악가를 포기하고 직조공장에 들어가 "여공으로 그들의 동무"가 되겠다고 결심한다.)에 주목하면서 여성이 현실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모색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다.[28]

그러나 이 소설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은 정형화된 주인성과 삼순이 아니라, 그의 언니 을순이다. 소설에서 을순은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운 다면체적 인물이다. "그의 제1 직업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것이고, 제2 직업은 자기보다 얼굴 곱고 재주 있는 사람의 흉을 지어서 선전하기고,

28) 신지수, 위의 글, 106쪽.

제3 직업은 유탕한 남자들의 썩어진 심리 연구"(300쪽)라는 구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을순은 "천격으로 된 여자"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끄는 유희적 매력을 가졌으며, 사회제도와 도덕적 관념에 비판적이면서도 "모든 것을 웃어버리지 않고는 못 살 것 같은" 기이한 마음의 여유를 가진 여성이다. 그러나 서로 상반된 자질들의 기이한 공존을 통해 구성된 이 을순이라는 캐릭터는 주인성과 삼순을 중심으로 꽉 짜인 서사 속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소설에서 겉돈다. 김명순 소설에서 가장 개성적이면서 새로운 캐릭터인 을순은 그렇게 틀에 박힌 서사에 흠집만을 남긴 채 사라진다.

그렇다면 이것은 김명순의 문학적 실패에 관한 기록인가? 그럴지도 모른다. 김명순은 정숙한 삼순과 방탕한 을순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자신의 문학적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김명순 소설 속 여성인물들은 주체 분열의 상태에만 머물 뿐 그 분열로써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데까지 나아가진 못했다고 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김명순은 '성폭력 피해자=문란한 신여성'이라는 '망가진 정체성'을 벗어나려고 고군분투했지만 끝내 자기만의 문학적 질서와 법을 만들지는 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김명순의 이러한 문학적 고투의 기록이야말로 그 자체로 특수한 문학적 형식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유전(流轉)함으로써 다양한 정체성의 흔적을 남긴 김명순 문학의 결을 그대로 따라가보는 일이다. 여성에게 규정되고 할당된 정체성을 넘어 새로운 인식적 주체로 거듭나는 최초이자 최후의 방법적 전략이 어쩌면 거기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김명순, 『김명순 문학전집』, 서정자·남은혜 공편, 푸른사상, 2010.

_____, 『외로운 사람들』, 송명희 편역, 한국문화사, 2011.

2. 단행본

이명온, 『흘러간 여인상』, 인간사, 1956.

임종국·박노준, 『흘러간 성좌 3』, 국제문화사, 1966.

최혜실, 『신여성,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나무, 2000.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395~403쪽.

3. 논문

김경애, 「성폭력 피해자/생존자로서의 근대 최초 여성작가 김명순」, 『여성과 역사』 제14집, 한국여성사학회, 2011, 31-82쪽.

김명훈, 「두 개의 신화와 두 번의 돌아봄, 그리고 하나이지 않은 X-김명순의 「돌아다볼 때」 다시 읽기」,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6호, 한국현대문학회, 2018, 366-369쪽.

김윤식, 「인형의식의 파멸」, 『한국문학사논고』, 법문사, 1973, 230쪽.

남은혜, 『김명순 문학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8.

_____, 「김명순 문학 행위에 대한 연구」, 『세계한국어문학』 제3호, 세계한국어문학회, 2010, 201쪽.

류진아, 「근대 여성 성폭력 연구-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의 소설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제61집, 국어문학회, 2016, 159-186쪽.

서정자, 「김기진의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 분석」, 『여성문학연구』 제4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252쪽.

_____, 「김명순의 창작집 『애인의 선물』」, 『여성문학연구』 제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385-402쪽.

신지연, 「1920년대 여성 담론과 김명순의 글쓰기」, 『어문논집』 제48권, 민족어문학회, 2003, 315-353쪽.

신혜수, 『김명순 문학 연구-작가 의식의 변모 양상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9.

_____, 「1920년대 문화번역된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Gerhart Hauptmann)-김명순의 「돌아다볼 때」와 「외로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국제어문학회 제69집, 2016, 182, 192쪽.

심진경, 「여성작가 생존기-나혜석, 김일엽, 김명순의 삶과 문학」, 『경희, 순애 그리고 탄실이』 해설, 교보문고, 2018.

조성희, 「서사를 통해 발현되는 자아와 세계의 간극 고찰-김명순 서사의 치유가 실패한 원인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37집, 겨레어문학회, 2006, 389-422쪽.

주수민, 「김명순 단편 <돌아다볼 때> 소고」, 『영주어문』 제40집, 영주어문학회, 2018, 315-337쪽..

최명표, 「소문으로 구성된 김명순의 삶과 문학」,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0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7, 221-245쪽.

홍 구, 「1933년의 여류작가의 군상」, 『삼천리』, 1933년 3월호.

Abstract

A text named Kim Myung-soon and the ever-changing female subject

Shim, Jinkyeong

Although Kim Myung-soon was one of the greatest writers in the modern Korean literary formation, the Scandalus was due to several biographical facts: the origin of a concubine's child, experiences of sexual violence, premarital cohabitation, conversion to movie stars, Japanese exile, and tragic death. It was consumed only as an incident and story, and was not evaluated for literary works. That is why Kim Myung Soon has not been treated well in Korean literature for a long time. However, Kim Myung Soon is now regarded as the first woman writer in Korea and the most active artist in the 1920s. This paper first summarizes these existing discussions about Kim Myung-soon, and based on this, I suggest that Kim Myung-soon's literary research should be centered around the text, Kim Myung-soon's literary works and discourses on the history of life. And as a case study of 'text named Kim Myung Soon', I analyzed Kim Myong Sun's novel as a whole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Kim Myung Sun literature.

One theme that penetrates Kim Myung Sun novels is the impossibility of love, romance, and marriage. This theme is primarily a way of resisting the norms of the world that define itself as a "sexually promising new woman," but in the process, he

creates a character called a bullet that overlaps fiction and reality. To this end, Kim Myung-soon, by arranging and reconstructing scandals about herself produced and distributed outside the narrative in a novel, intersecting and attaching female characters in the novel with the artist himself outside of the novel, breaks the boundary between reality and fiction, reality and narrative. Blurry In particular, Kim Myung Sun's novel "Tansil-I and JuYong-I" is a work that shows the intersection, ambiguity and liquidity of Kim Myung Sun's novel. In this novel, Kim Myong-sun analyzes his life in depth by analyzing his life and also resists the reality of honor killing himself as a victim of sexual violence. In the process, Kim Myeong-soon or Chan-sil is a woman who has personality unique to her identity beyond the gender identity granted by the contemporary society through the variation of various subject positions.

Key words : text named Kim Myung-soon, Korea's first female writer, the impossible of love, an ascetic, a victim of sexual violence, new cognitive subject.

■ 본 논문은 2019년 7월 10일에 접수되어 2019년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9년 8월 1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